

CLEAN ENERGY SMART KEPCO

2019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보고서 개요

보고서 특징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는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Annual Report를 통합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으며, ISO 26000,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원칙 및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인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국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였습니다. 재무 정보의 보고 기준 및 정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따르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2019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 중대토픽과 관련된 정성적 활동의 경우 2019년 8월까지 활동을 수록하였으며, 중요 정량적 성과의 경우 최근 3개년(2016~2018)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무적·비재무적 정보 모두 당시 공시 체계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한국전력의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및 환경 데이터는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6개 발전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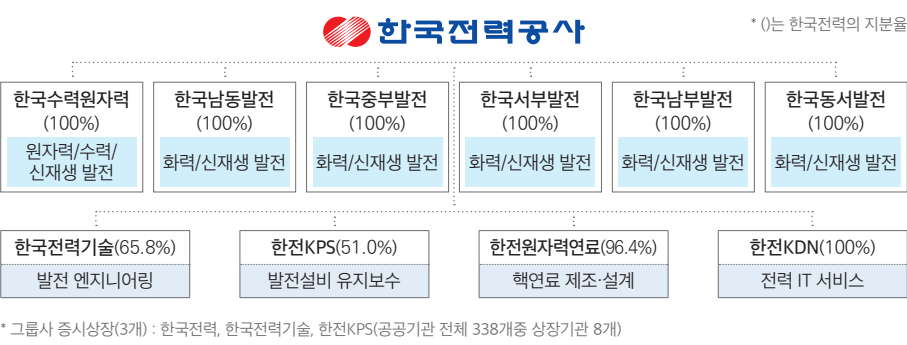
제3자 검증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의 제3자 검증을 통해 보고서의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검증의견은 본 보고서 98~9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PCO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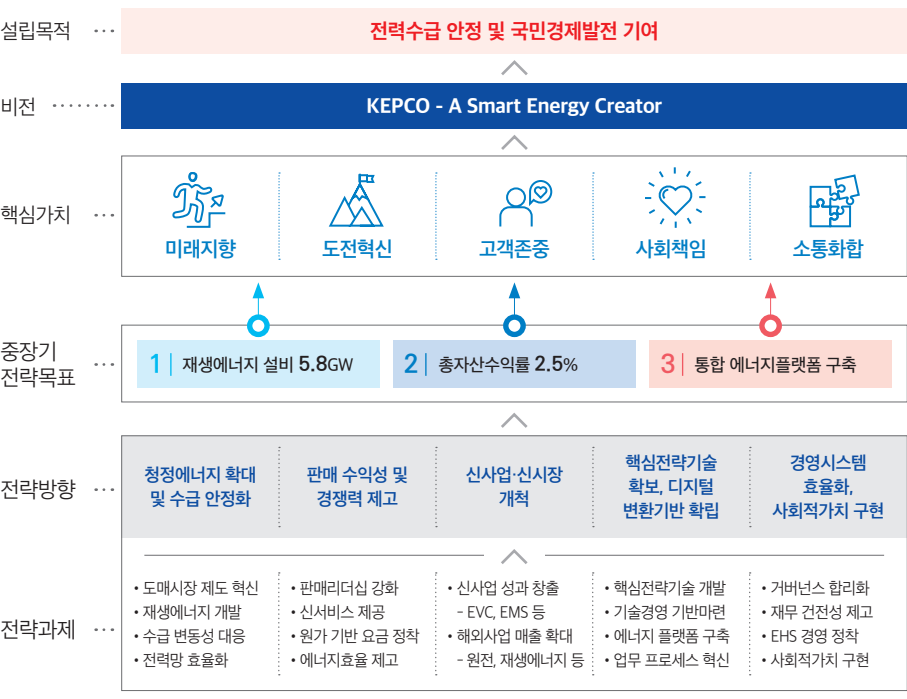
회사 개요

기업명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약칭 KEPCO)	총자산 (연결 기준) 185.3조	임직원 수 (정규직 기준) 22,272명
설립일	1898년 1월 26일	매출액 (연결 기준) 60.6조	전력판매량 526,149GWh
본사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번지)		
대표이사	김종갑		
주요 사업	전력자원 개발, 연구·기술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영업, 해외사업 등		



KEPCO 2030 Strategy

2030 중장기 전략



KEPCO Highlights



36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 체결

2019년 6월 한국전력 본사에서 '2019년 제1차 에너지밸리 기업 투자 협약식'을 통해 총 397개 기업을 유치하며 당초 목표인 500개 기업 유치 목표의 79%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에너지 밸리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공급 기반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재생에너지 시장 최초 진출

2018년 12월 필리핀 칼라타간 지역에서 운영 중인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지분의 38%를 인수하며, 필리핀 진출 이후 최초로 신재생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또한 솔라 필리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향후 추가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8년간 총 3,1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본드 5억 달러 역대 최저금리 발행

신재생 및 친환경 사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Green Bond)를 국내 공기업에서 발행한 그린본드 중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 하였습니다. 조달 금액은 전기 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친환경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3년 연속 선정

한국전력은 2019년 4월 '2018 CDP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Carbon Management Sector Honors)로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탄소정보공개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제 스마트그리드 Award 2019 대상 수상

2019년 5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 스마트그리드 기술 경진대회인 ISGAN Award of Excellence에서 '오픈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으로 영예의 대상(Winner)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CIO 100 Awards' 4년 연속 수상

한국전력은 빅데이터,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EN:TER')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5월 제32회 'CIO 100 Awards'에 4년 연속 수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디지털 변환의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에너지 및 데이터 분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 신뢰와 협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협력사와 주주**,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은 한국전력의 120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한국전력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는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서 5년 연속 전기공급 분야 최상위권에 선정되고,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글로벌 유틸리티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탄소정보공개사업(CDP)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3년 연속 선정, 국제 스마트그리드 기술경진대회 대상 수상, 필리핀 태양광사업 수주 등의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극복하면서, 고객과 함께 지속성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금의 전력산업계는 '에너지전환'과 '디지털변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확산을 주도하고,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미래 첨단기술을 확보해 에너지 신(新)산업을 이끌어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전력공급 효율성과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여겠습니다.

시장과 고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산 전원이 확산되고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프로슈머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은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새로운 질서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전력공급의 효율을 더욱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영 전 분야에 걸쳐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여 재무 건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와 자원을 전력산업계와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모두가 함께 발전해 가겠습니다. 나아가 합리적 요금체계 로드맵을 수립해 전력 소비 왜곡을 해소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윤리·투명·안전경영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소외계층 배려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내재화해 청렴 사회 건설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재난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고객과 주주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분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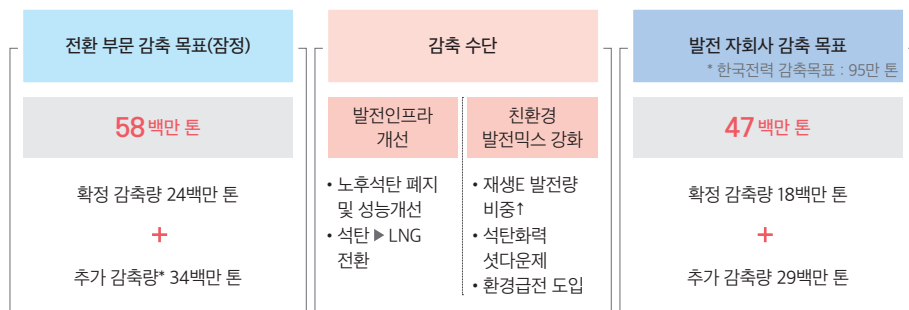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기후변화 대응 선도

2015년 기후변화체제인 파리 협정이 공식 채택된 이후, 한국전력은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 계통연계 인프라 확충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 전환부문 감축 목표 58백만 톤 중 34백만 톤은 추가 감축 잠재량으로, 2020년 국가별 감축 기여 방안(NDC) 제출 전까지 확정 예정

온실가스 감축활동 강화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과 각종 전력설비에서 절연 목적으로 사용되는 SF₆ 온실가스 사용 저감을 위한 정제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친환경 고효율 전력생산 기술로 엔진 폐열 이용 MW급 초임계 CO₂ 발전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도서 지역에 적용 가능한 폐열 활용 유기랭킨사이클(ORC, Organic Rankine Cycle)* 발전과 혼소발전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ORC 발전 : 산업체에서 버려지는 미활용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스팀보다 증발 온도가 낮은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시스템

한국전력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공개 프로젝트)에 기후변화정보 공개 리포트를 제출하여 전 세계 525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탄소 배출량 및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 Key Performance

온실가스 감축

5.5만 톤 CO₂eq 달성



신재생 계통연계 인프라 확충

1,275MW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Carbon Management Sector Honors) 에너지 & 유틸리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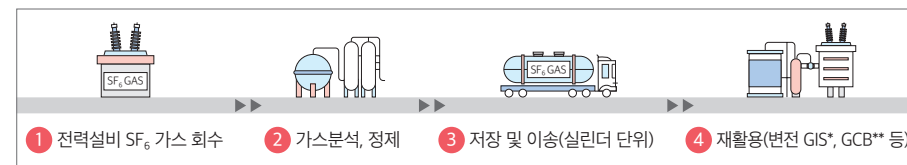
3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SF₆ 감축기술 개발 및 전력설비 적용

한국전력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는 송배전 절연 물질로 사용 중인 SF₆ 가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옥천 변전소에 SF₆ 가스 회수정제 센터를 구축하여 배전용 개폐기에서 발생하는 SF₆ 가스를 회수·정제하여 변전 분야에 재활용함으로써 연간 약 2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SF₆ 가스 대신 고체절연물, 질소 등의 대체재를 활용한 친환경 개폐 장치를 개발하여 전력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점차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SF₆ 가스 회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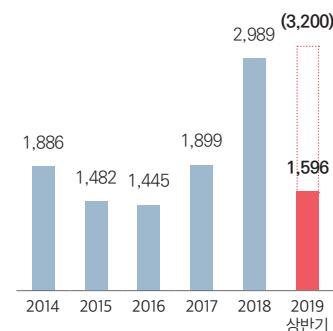
* GIS(Gas Insulated Switchgear) : 가스절연개폐장치 ** GCB(Gas Circuit Breaker) : 가스차단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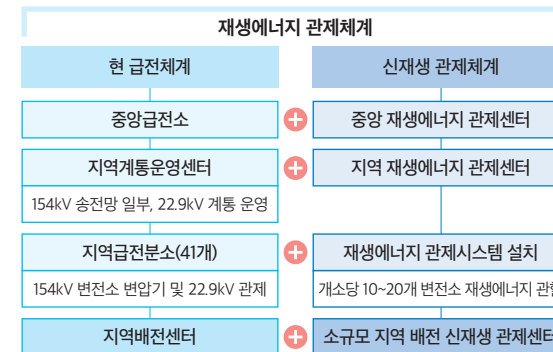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원활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하여 인프라 및 제도 측면에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설비 보급으로 접속 현재 6.6GW의 접속 대기 물량 중 4.4GW(67%)의 대기 물량을 향후 1년 이내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수급 변동성에 대비하고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출력 제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중앙 관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용량

[단위 : MW,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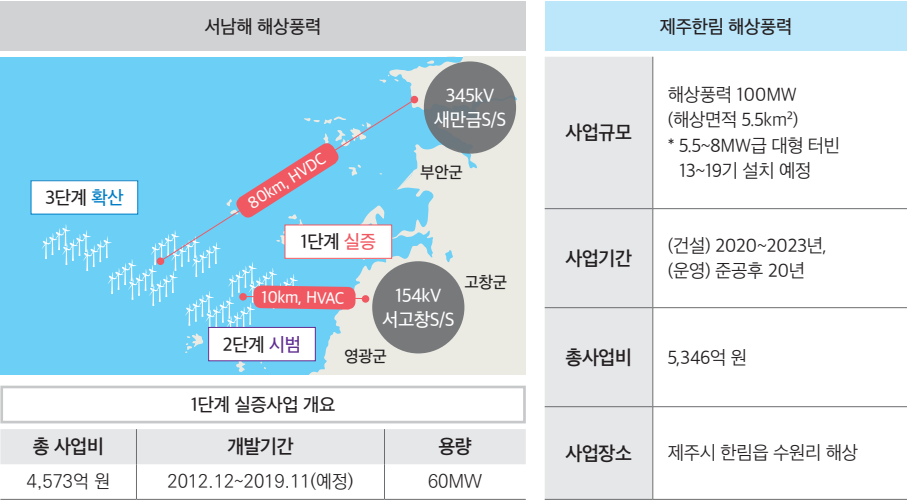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감시제어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확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전력은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직접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60MW), 제주 한림 해상풍력(100MW), 안좌도 태양광(300MW) 등이 있으며, 추가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개발 후보지 선정 및 계통연계 방안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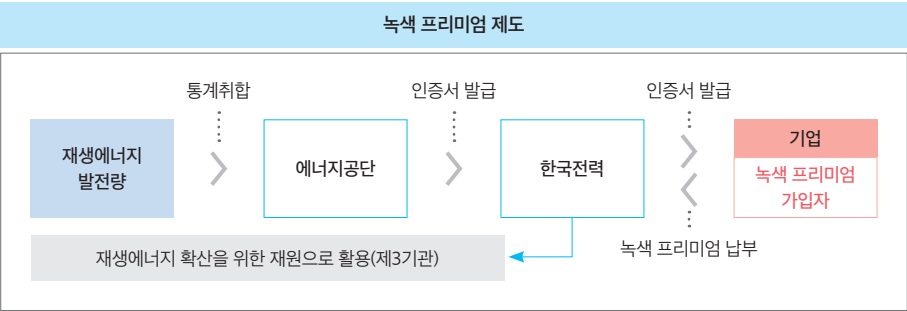
또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기술 사업화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광역, 원거리에 위치한 해상풍력단지 주변의 기상, 파랑, 유속, 수질, 해저지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해상풍력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격에서 무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저비용으로 양질의 환경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까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전 해역 대상 환경정보 표출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상풍력 사업개발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RE100 이행 여건 조성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소비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2014년 발족한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한국전력은 RE100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단기 이행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내 RE100 이행 여건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색 프리미엄*, Green Tariff** 등 재생에너지 구매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과 전력망 유연성 확보 등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을 위해 전력회사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 녹색 프리미엄 제도 : 소비자가 신재생전력을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 Green Tariff : 판매사업자가 개별 고객의 재생에너지 구매 요금제를 설계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



가치사슬의 친환경화



* K-SEMS(KEPCO-Smart Energy Management System) : 한국전력이 개발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자원 통합관리 솔루션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BUSINESS CASE

한국전력의 CDM 사업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으로는 국내 외부사업과 해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CDM 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력 분야 CDM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중국 신재생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과거에 투자했던 중국 신재생 법인의 사업을 CDM 사업 실적으로 인정받아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하고자 2019년 4월에 '한전-대당탄자산유한공사간 배출권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배출권 15만 톤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2019년 5월 미얀마에서 '맹그로브 숲 조성을 통한 CDM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해안가에 서식하는 나무로, 같은 면적의 열대우림에 비해 약 4배 정도의 월등한 CO₂ 흡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맹그로브 조림 1차 사업으로 50ha에 18만 그루의 맹그로브를 식재하여 20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17만 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맹그로브 조림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해안가에 조성된 숲을 통해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미얀마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신재생 CDM 사업 계약식(2019.4)



미얀마 맹그로브 CDM 사업 계약식(2019.5)

전력공급 인프라 및 서비스 혁신

한국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차세대 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력망 건설 및 운영의 최적화·효율화를 달성하고 고객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Global Top 전기품질 달성

2018년에는 호당 정전 시간이 전년대비 5.4% 감소한 8.59분을 기록,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계통 신뢰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간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배전선로 및 송전선로 정밀 진단을 통해 설비고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였으며,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정전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력설비 최적 운전, 저손실 기자재 사용 등 전력손실 감소 노력을 통해 2018년 송배전손실을 3.56%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중요 행사 개최 시, 공급선로에 대한 예방정비 및 다중전원 확보를 통해 100% 무정전 전력공급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상시 신속복구체제를 구축하는 등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등 중요 행사 무결점 전력공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전 분야의 경우 기존 배전자동화시스템(DAS)에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배전지능화시스템(ADMS, 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을 2020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ADMS 개발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다양한 분산전원 확산에 대응한 능동형 배전망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송변전 분야는 실시간 전력계통 감시, 제어, 해석이 가능한 '지능형 SCADA* 시스템'으로 연내 전환 완료 예정이며, IoT 기반으로 전력설비 자가진단 등 자율운전이 가능한 '디지털 변전소'를 2020년까지 전국 15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에 대한 이상 징후 조기발견, 설비고장 신속 복구 등 전력공급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 전력설비 감시제어 및 데이터 취득 시스템

2018 Key Performance

정전시간

8.59분/호



송배전 손실률

3.56% 세계 최고 수준



규정전압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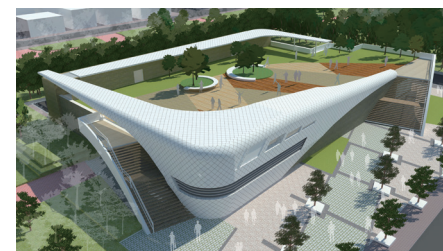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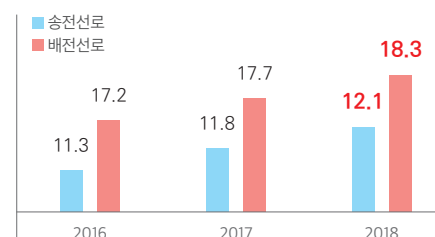
99.98%



설비 계획 및 건설 패러다임 혁신

한국전력은 전력수요 증가와 신재생 전원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제8차 송변전설비계획(2018년)은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등을 위해 송변전-배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설비계획 수립을 통해 적기 설비건설 및 설비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설비 입지선정 과정에서 전주기 갈등관리 시스템을 정립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포함한 '주민개방형 변전소', 미관을 고려한 '도심 조화형 변전소' 등 신개념 전력설비 구축 노력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은 전력설비의 지중화를 확대하는 한편, 지상기기는 최소화하는 선진국형 신지중설비 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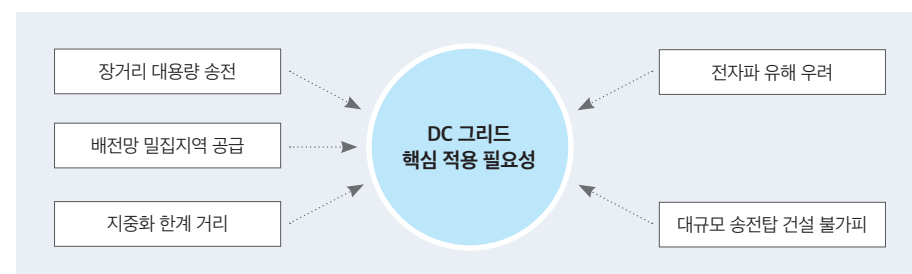
송배전 지중화율 현황 [단위 : %]



도심조화형 변전소 조감도(154kV 동평택변전소 'Energy Park')

송배전망 DC 기술 확대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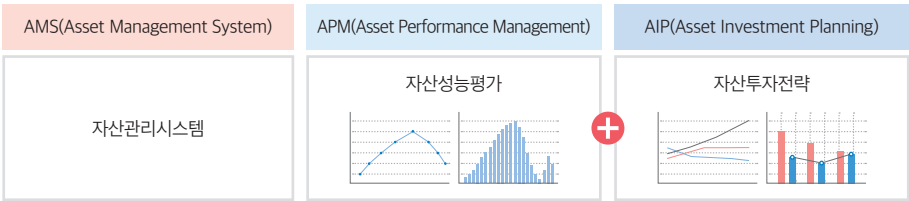
직류송전시스템은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송전하는 전력 시스템입니다. 송전망에서는 북당진-고덕, 동해안-신가평 HVDC 등 대규모 송전급 DC설비 적용을 통해 장거리 송전손실 및 철탑 크기 감소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계통구성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전급에서의 DC 기술은 동북아 수퍼 그리드 구축시에도 한-중-일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핵심기술로 적용될 예정이며,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직류배전 실증단지 구축 등 배전망에도 DC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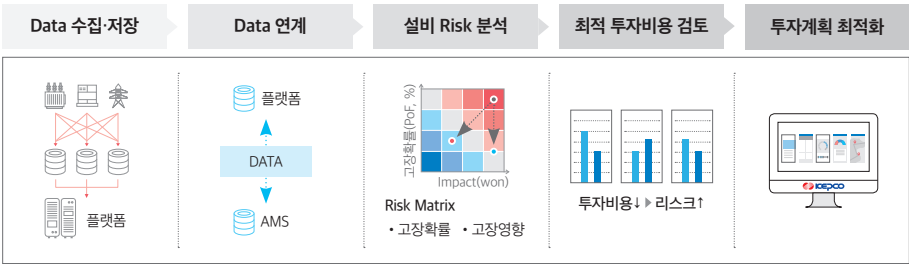
통합 자산관리시스템(AMS – Asset Management System) 구축

한국전력은 전력설비의 전 주기 상태를 점검하여 잔여 수명과 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유지보수 및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자산관리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장확률 및 고장영향을 계량화하고 리스크를 평가하여 적정 투자규모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설비의 최적 성능 유지 여건을 마련하고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자산운용 최적화를 달성,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산관리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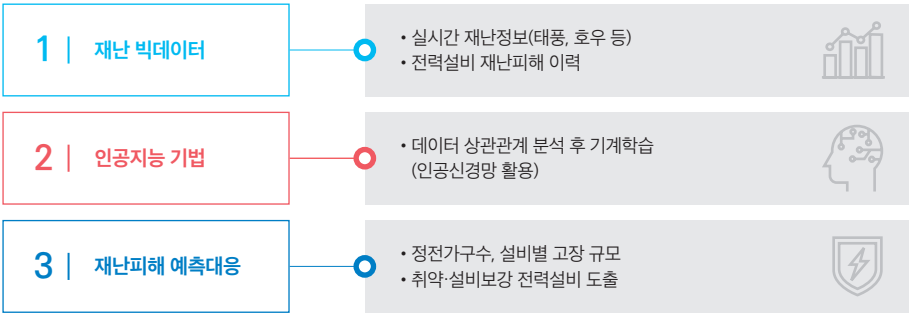
자산관리 Process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한국전력은 자연재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기상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태풍, 호우 등 실시간 재난 상황을 예측, 사전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설비 재난피해 이력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 데이터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전 가구 수, 설비별 고장 규모 등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전력설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보강하는 등 설비 피해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대응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송변전설비(2,688개), 변전소 건축물(848개), 송배전 전력구(665km) 및 원전 스위치야드(11개)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고, 신규전력 설비 건설 시 활용 가능한 기초 지진동 흡수장치 등 내진 신공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5월까지 지진피해 통보·예측 시스템 구축을 연구하고, 전력설비 피해 예상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지진피해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가치 향상 및 고객중심 서비스 확대

여름철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여 여름철(7~8월 또는 8~9월) 가구당 평균 12,220원의 요금을 인하하는 등 총 3,587억 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재우 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바일 음성청구 전사 확대, 스마트한전 APP과 한국전력 사이버 지점을 활용한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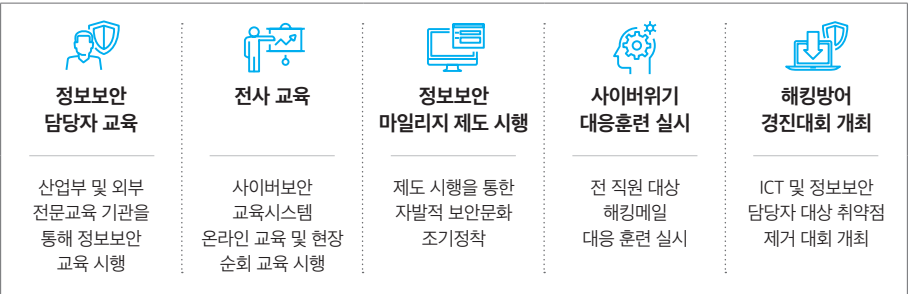
하계(2018년 7~9월) 누진구간 완화

구간	주택용 저압 전력량요금 (원/kWh)	중전	개선
1	93.3	200kWh 이하	300kWh 이하(+100kWh)
2	187.9	201~400kWh	301~500kWh(+100kWh)
3	280.6	400kWh 초과	500kWh 초과

고객 정보 보호 강화

선제적인 보안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랜섬웨어, 악성코드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국가 전력망과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전력제어시스템, 정보시스템, 인터넷 서비스의 보안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 하였습니다.

2018년 개인정보보호 주요 활동



BUSINESS CASE

평창 동계올림픽 무결점 전력공급

한국전력은 63일간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무결점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올림픽 역대 두 번째 강추위(최저-17.1℃)와 중요시설이 해발 850m의 산악지역에 위치하는 등 불리한 지리적 여건, 그리고 올림픽 조직위원회 내 전기전문가가 부족한 악조건 상황에서도 정전 없는 전력확보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성공적 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올림픽 변전소 등 42개소의 설비를 확충하고 111건의 배전 지중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무결점 전력공급 인프라를 구축 했습니다. 이에 1,501억 원의 예산과 8,870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전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정전 없이 전력이 공급된 대회는 평창올림픽이 유일하다(에너지 부문 책임자 '존 지안카를로')는 찬사를 받았으며,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벤치마킹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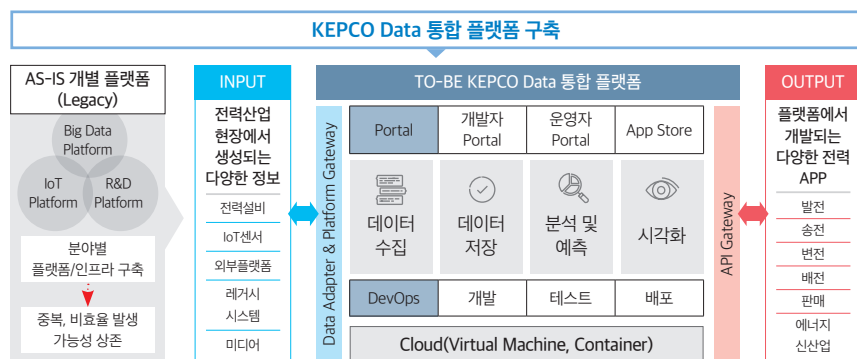


미래 성장동력 창출

한국전력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를 접목하여 사업영역 및 인프라, 서비스, 프로세스 전반의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변환 방향 설정을 위한 전력 수립,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전력빅데이터 융합센터('19. 4)와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Data Science Lab) 신설,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 개설('19. 8) 등을 통해 'Digital KEPCO'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

분야별 플랫폼 개별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경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2018년 2월 구축완료)'과 이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시각화 및 활용할 수 있는 APP을 개발하는 '개발 플랫폼(2019년 말 구축예정)'으로 구성됩니다.



* 전사 261종 업무시스템 및 사외 데이터 수집

전력 빅데이터 융합센터 및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공공기관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 신서비스 창출 및 데이터 공유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3조건 이상 생산되는 방대한 전력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데이터 전문가, S/W 전문가, 사내 연구인력)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현업과의 협업 기반의 업무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 EN:TER

EN:TER는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와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마켓', '전력수요 관리(DR) 마켓', '전력 데이터 서비스(EDS) 마켓'으로 구성됩니다. 고객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회사·공장·빌딩 등의 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대체하거나, 전력수요 관리(DR) 마켓을 통해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데이터 서비스(EDS) 마켓에서 전기사용량을 손쉽게 확인하는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전력 데이터와 이중 데이터 연결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8 Key Performance

R&D 사업화 실적

1,194억 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8,014기 구축



핵심전략기술

89개 확보 (2010~2018 누적)



해외 누적 발전설비용량 * 2019년 6월 기준

27,339 MW (지분기준 8,825MW)



수익중심 에너지 신사업 확대

한국전력은 전력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에너지관리 시스템 보급 등 핵심 사업을 고도화하고, 스마트시티, 마이크로그리드 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2020)	에너지 신사업 프론티어	중기(2022)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러	장기(2030)	新에너지생태계 리더
신사업 매출 0.4조 원		신사업 매출 1.3조 원		신사업 매출 7.5조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모빌리티 플랫폼 사업화 개방형 EMS 플랫폼 개발 P2G 핵심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송부문 전기차 전환 확대 KEPCO형 스마트빌딩 확산 스마트시티 플랫폼 국가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속 충전기 개발·확산 스마트시티 수출 P2G 기반 KEPCO MG 사업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2009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한 이후, 공용 충전소, 거주지 연계 아파트용 충전소등의 다양한 모델의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버스 등 수송 부문 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공용 급속충전기 3,000기 구축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기반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융복합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스마트시티는 IC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미래 도시 플랫폼으로서, 현재 한국전력은 나주 혁신도시에 KEPCO형 에너지시티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통합에너지 관리기술을 실증, Reference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로그리드(MG) 실증사업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수소기술을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에 접목한 'P2G(Power to Gas) 기반 MG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 잉여전력을 P2G 기술을 통해 수소로 변환하여 사용하거나 ESS(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하고,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개인 간 거래함으로써 지역별 에너지자립과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EPCO 2030 기술전략 수립 및 8대 핵심전략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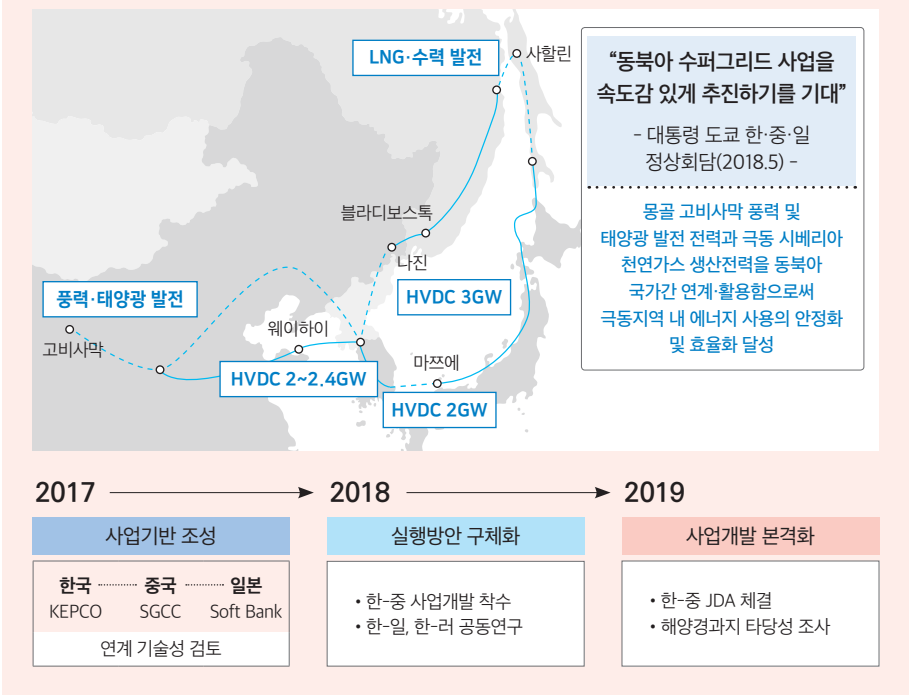
한국전력은 오늘날 전력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저탄소(Decarbon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분산화(Decentralization)라는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말 KEPCO 2030 기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전력산업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전력산업 디지털 변환 추진,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산, 전력계통 미래 수용성 확대를 위한 그리드 운영 핵심기술 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플랫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포함한 8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기술확보를 위해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8대 핵심전략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에너지 플랫폼	• 빅데이터 플랫폼 • 인공지능 플랫폼 • 비즈니스 플랫폼	에너지 전환	Grid-ESS	• ESS 운영기술 • ESS 엔지니어링 • 수소에너지(P2G)
	디지털 전력시스템	• 디지털 파워플랜트 • 지능형 변전소 • 자산관리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 차세대 풍력 • 재생에너지 엔지니어링 • 타산업공존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향상	• 스마트 에너지시티 • DR & BTM 솔루션 • 고효율/친환경 기기	전력망 고도화	수퍼그리드	• 국가간 계통연계 • HVDC 송전기술 • HVDC 변환기술
	청정 융합발전	• 탄소포집 및 자원화 • 순산소 발전 • 초임계 CO ₂ 발전		Active 배전망	• 능동배전망 기술 • 분산전원 연계 • DC 배전 기술

BUSINESS CASE 한·중·일, 한·러 동북아 수퍼그리드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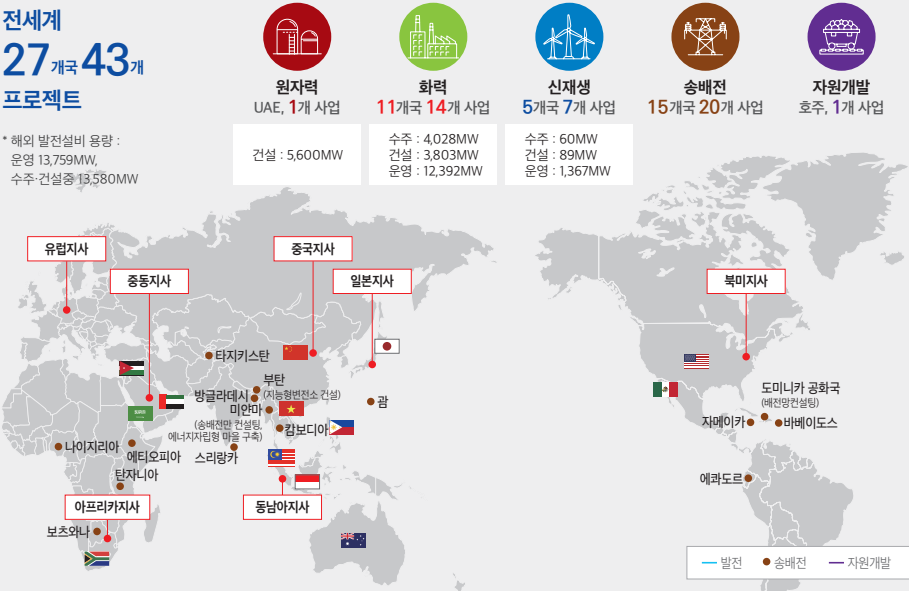
한국전력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인 '동북아 수퍼그리드' 본격 추진을 통해 독립계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한·중) 공동사업개발 MOA 체결(2017.12), (한·러) 계통연계 협력 MOU 체결(2018.6)에 따른 공동연구 착수, (한·일) 정부 및 전력사/민간기관 협력 채널 조성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계통연계 국가정책 반영 및 사업추진 합의에 따른 실행방안 구체화를 통해 계통성 한계 극복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안정적인 고 효율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Global Leadership 확보

한국전력은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서 화력·원자력·신재생·송배전 및 자원 분야 등 43개 프로젝트(2019년 6월 기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력·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운영뿐만 아니라 저탄소·고효율 화력발전과 신재생 사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Provider로 자리매김하고, 중장기적으로 융복합 신사업 Biz Model을 발굴하고 신규 원전사업을 수주하는 등 Global Leadership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해외사업 현황(수주·건설·운영 중인 사업)



UAE • 바라카 원전(원자력 5,600MW) • 슈웨이흐 53(가스 1,600MW)	중국 • 산서성(석탄 9135MW) • 중국 신재생(풍력 1,017MW, 태양광 7MW)	필리핀 • 일리한(가스 1,200MW) • 세부(석탄 200MW) • SPC(석탄/중유 279MW) • 칼라타간(태양광 50MW)	미국 • 플로리다(태양광 30MW) • 캘리포니아(태양광 235MW) • 람(태양광 60MW) • 람 우쿠두(가스 198MW)
사우디아라비아 • 라브(중유 1,204MW)	남아프리카공화국 • 타바네시(석탄 630MW)	말레이시아 • 풀라우인다(가스 1,200MW)	멕시코 • 노르페 III(가스 433MW)
요르단 • 알 카트라나(가스 373MW) • 알만(디젤 573MW) • 푸제이지(풍력 89MW)	일본 • 치토세(태양광 28MW)	인도네시아 • 자바 9&10(석탄 2,000MW)	호주 • 바이(풍력)
	베트남 • 응이슨 III(석탄 1,200MW)		

2018-2019년 해외 사업 소식

- 1

2013년, 89.1MW 규모의 요르단 푸제이지 풍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수주, 2016년 12월 착공 및 2019년 7월 준공 후 상업 운전 개시
- 2

2016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배전 EPC 사업 수주, 2018년 3,8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 배전망 개선사업 수주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 인정
- 3

2017년, 60MW 규모 미국 람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8년 8월 장기 전력 판매계약 체결
- 4

2018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235MW규모 3개 태양광 발전소의 지분 50% 인수 완료, 한국전력 최대 규모의 해외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생산된 전력은 장기 전력 판매계약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전기 사업자에게 전량 판매될 예정
- 5

2018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신규원전(APR1400 27/2,800MW) 수주를 위한 민간 합동 수주 활동을 전개로 예비사업자 지위 확보
- 6

2018년 12월, 필리핀 칼라타간 5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지분 38% 인수 완료, 한국전력의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 이후 최초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산된 전력은 장기 전력 판매계약을 통해 필리핀 국영 송전공사에 전량 판매될 예정
- 7

2019년 6월, 미국 람 전력청(GPA)이 발주한 람 우쿠두(Ukudu) 가스복합 발전소(200MW급) 건설 및 운영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한국전력은 전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송변전, 배전, 판매 등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의 사회적가치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한국전력은 일자리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실적

- 1 퇴직, 휴직 대체 전망 등을 반영한 적기채용을 통해 2018년 역대 최대규모인 1,786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제도 운영을 통해 1,354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습니다.
- 2 2018년에는 에너지밸리 활성화 및 Start-up 발굴 등을 통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여 총 58,041명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3 '정규직 전환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공기업 최초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검침 인력에 대해 대체직무 개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대폭 확대 (2,183명→5,295명)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전원 합의를 통한 자회사 설립 등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정규직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4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청년인턴제와 연계한 고졸 채용을 통해 우수 고졸 인재를 지속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형 '3無(스펙, 학교장 추천, 성적평가) 채용모델'을 도입 하였습니다.
- 5 2018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체 채용인원의 62%를 달성하였습니다.

2018 Key Performance

공기업 최대규모의 좋은 일자리 창출

61,466명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비율

73.3 %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체계

ISO 45001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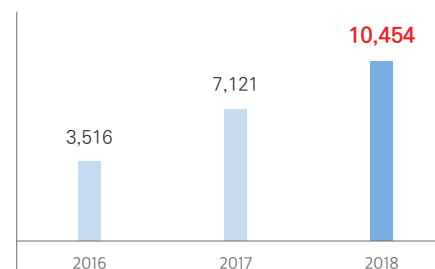


일과 삶의 균형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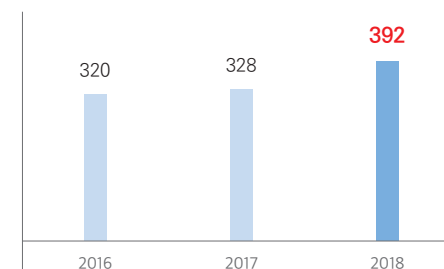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삶의 균형'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사 근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개인별 LifeStyle을 반영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형, 집약 근무형 등 2019년 6월 기준 총 63종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며 자율적 근무 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2018년 유연근무제 사용 직원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0,45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친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육아지원 제도를 개선·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임신기 단축 근무제의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하였으며, 육아기 단축 근로제도를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3회)를 폐지하고 출산 시 배우자 휴가를 확대(5일→10일) 하였습니다.

유연근무 활용인원 [단위 : 명]



육아휴직자 [단위 : 명]



상생의 노사문화 구현

한국전력은 직원 간 상호 존중과 감사·나눔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을 지향합니다. 직원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업문화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노사 합동으로 전사적인 실천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감사나눔'의 생활화와 '긍정의 힘' 확산을 통해 개인 삶의 태도 변화와 기업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KEPCO Thank U 123'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강화

한국전력은 환경·보건·안전(EHS)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EHS경영의 구체적 방침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2018년 5월 국제표준에 맞춘 EHS 경영방침을 수립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안전 최우선시하는 자율 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한국전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송변전·배전·정보통신 분야 신제품 및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연구비의 85%,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 R&D를 통해 개발한 품목에 대해 166억 원의 우선구매를 시행하였고 에너지밸리 기업판로지원을 위해 변압기 제조회사 등 41개사 1,219억 원 규모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 24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123개 사가 한국전력 인증 브랜드(KTP : KEPCO Trusted Partner)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촉진회 및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을 통해 각각 522만 달러와 631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EPCO 수출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해외 바이어 및 시장 정보, 입찰 관련 정보, 각종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동반성장

한국전력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급자 행동강령 배포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과 OECD 및 ILO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2년 공공기관 최초로 '공급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입찰 참여 회사 전체 계약 건에 대해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전 과정 전자시스템 도입

2018년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암호화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평가위원별 열람권을 통제하는 등 평가 왜곡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위변조·허위서류 제출시 해당 품목에 대한 기자재 공급자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적용을 자재구매 입찰 뿐 아니라 공사·용역 포함 약 20,000건으로 확대하고, 담합신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성과를 인정받아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개선 사례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수평적 상생기반 구축

2018년 불합리한 거래 조건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계약 및 시공분야 규정 등 총 44건의 거래조건을 검토하여 총 18건의 불공정소지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자재조달 및 상생 발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2019년 8월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전력 입찰제도 설명 등 제1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전략적 사회공헌 추진

한국전력은 사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전력 등 11개 전력그룹사 합동으로 이천지역 농축수산물 박람회를 개최하여 성장기 단계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150개사의 판로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숙기단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임팩트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 재무적 수익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환경적 성과 달성을 위한 투자

글로벌 사회공헌 지속 확대

한국전력은 해외사업 진출 국가에 대한 현지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3개국에 총 135명의 임직원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여 놀이터 등 체육시설 조성, 벽화 그리기, 학교 및 도서관 개보수 활동을 하였으며, 아동대상의 한국문화교실 운영, 운동회 개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에 국가별 30명, 총 90명의 대학생 봉사단을 파견하여 학교와 마을의 시설을 보수하고 현지 태양광 발전소 건립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실명 위기 환자를 대상으로 개안수술을 시행(Eye Love Project)하여 2018년에는 남아공 등 3개국에서 1,476명을 진료하고, 229명에게 개안수술을 시행하여 전 세계에 '꿈과 희망의 빛'을 선사하였습니다.



1. 태양광 가로등 설치
4. 건물 개보수

2. Solar-E 학교 구축
5. 교육봉사

3. 전기과학교실
6. 문화교류

BUSINESS CASE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1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분야 '2018년 올해의 일자리 대상' 수상

한국전력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공동후원으로 개최한 '2018 올해의 일자리 대상'에서 에너지밸리 조성을 통해 9,000여 명의 대규모 민간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주관 전국 일자리 워크숍 우수사례 발제

한국전력은 2018년 12월에 전국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200여 기관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관 '전국 일자리워크숍'에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맞춤 지원(판로/금융 등) 및 Start-up 창업 지원 등의 우수사례를 공공기관 대표로 발표하였습니다.

